

태양인

혼자 보단 어울려 공부하는게 효과

머리와 목덜미가 발달했지만, 허리와 하체가 약하다. 따라서, 폐에서 기의 호산(呼吸)이 강하고 간에서 영양분의 흡취(吸收) 흡수하고 모는(모는) 기능이 약하다.

발산하는 기운이 많아서 모든 면에서 저돌적이며 '참의적'인 한편, 틀에 얽매지 않고 직관적으로 판단한다. 사리판단이 명확하고 주의가 발달했을 뿐 아니라 의욕이 강해 열심히 하고 창의력이 뛰어나서 인정받는 타입이다.

창의성이 뛰어난 만큼 틀에 얽매는 학교공부에는 흥미를 가지기 어렵다. 또 혼자보단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계획을 세워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태양인의 수가 매우 적다.



가슴 윗부분이 발달했다. 몸무게가 뚜렷하다. 허체가 약해 서있는 자세가 불안하다. 엉덩이가 작다.

체질에 맞게 공부하니 머리에 쑥쑥 들어오네

사상체질로 알아본 내 아이 학습법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체질은 모두 다르다. 성격도 마찬가지로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왜 같은 환경인데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자신과 맞지 않은 방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자기 몸에 딱 들어맞는 옷이 따로 있듯, 학습법도 아이의 체질에 맞게 달라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사상의학에 따르면 사람의 내장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氣)의 운용방식은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장기의 강약에 따라 감정이 조절되고, 그렇게 형성된 성격이 병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체질은 어떻게 작용할까. 유독 위우는 것에 강한 아이, 이해력이 뛰어난 아이, 칭찬해주면 더 잘 하는 아이, 혼냈을 때 효과가 있는 아이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체질의 습성을 파악해 학습에도 활용한다면, 아이의 공부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한의학에서 다루지는 사상체질에 따른 아이들의 특성과 공부법을 알아본다.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데도,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아이들이 가진 체질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체질을 파악해 알맞는 학습법을 찾아보자. (광주일보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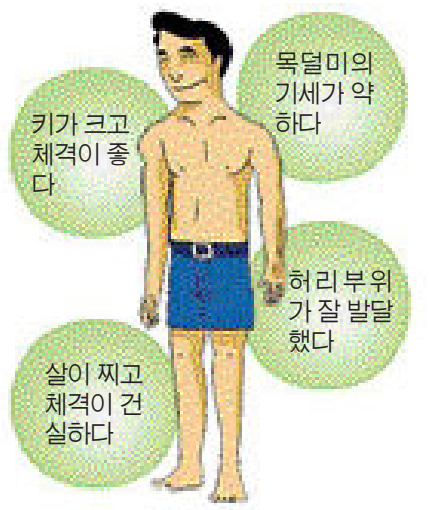
태음인

역지 암기보단 원리중점 이해하도록

허리와 목덜미가 약하지만, 하체가 발달해 체격이 건장하다. 따라서, 간에서의 흡취기능이 강하고, 폐에서 기의 호산기능이 약하다. 낭만적인 호걸형으로 과묵한 성격에 책임감도 강해 순종적이나 라이벌의식이 강하다.

주위력·집중력이 뛰어나서 비교적 빨리 이해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한다. 반면에, 강한 책임감은 공부에 대한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잠념이 많아 역지로 공부하면 절대 집중할 수 없다.

산만한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약점이 있어 시험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리를 함께 이해시켜 주고 위우지 않아도 되는 결과지들을 쳐내주는 학습이 효과적이다. 좋지 못한 공부 습관이나 단점에 대해 다그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믿어주는 만큼 보답하는 '대기만성형'이다.



목덜미의 기세가 약하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다. 허리 부위가 잘 발달했다. 살이 찌고 체격이 건실하다.

소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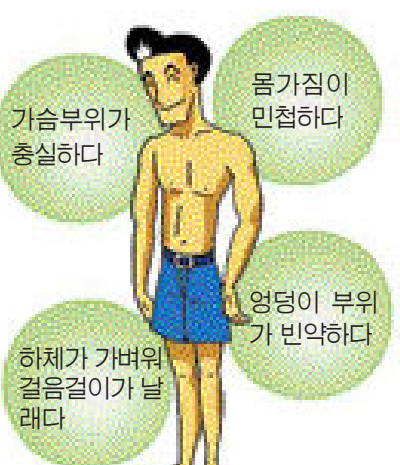
예·복습 꾸준히 하고 집중력 키워야

어깨는 넓지만 엉덩이가 다리·발목이 약하다.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하므로 책상에 오래앉아 공부하기 어려운 체형을 갖고 있다.

비위의 흡수(吸收)기능이 강하고, 신장의 배설(排泄)기능이 약하므로 열이 많고 성격이 급하다. 판단력이 빠르고 행동력이 강하며 공격적이어서 한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조금씩 성격이다. 하지만, 성격이 명랑하고 남과 쉽게 어울리기 좋아하는 타입이다.

순발력이 좋아 초기 이해가 빠르고 핵심과목과 순간암기력이 뛰어나지만, 이해의 깊이는 떨어진다.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버리는 '바라치기 스타일'이다. 자기중심적이며 감성적인 면이 있어 쉽게 포기한다.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복습과 예습 같은 꾸준한 공부 습관으로 소양인 특유의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쪽지에 적어 봤다가 시험직전 훑어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간섭과 압박을 싫어하고 언제든지 자기합리화를 위해 억지논리를 펴므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의명분만 분명하면 쉽게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는 '폼생폼사' 스타일이기도 하다.



몸가짐이 민첩하다. 가슴부위가 충실하다. 엉덩이가 부위가 빈약하다. 하체가 가벼워 걸음걸이가 날라다.

소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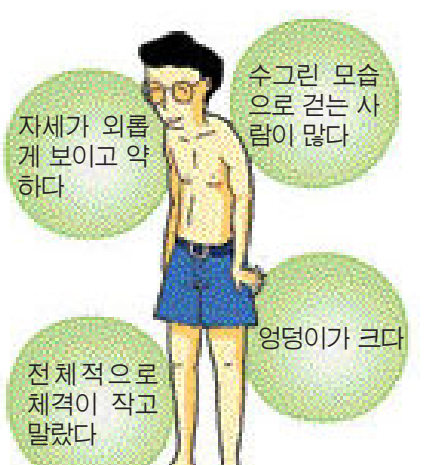
자신감 기르고 설명하는 습관 필요

어깨와 가슴이 좁고 엉덩이가 넓어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해 있다. 성격이 워낙 꼼꼼해 어떤 일을 맡겨도 빈틈없이 잘 처리한다. 재능이 명석해 천재가 많다.

주의력이 조금 부족해 초기 학습시간은 걸리지만 집중력이 뛰어나 한가지에 푹 빠진다. 대신 지구력은 약한 편이다.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논리적이다.

따라서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리중심으로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체계가 잡히면 늘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어 한번 이해한 것은 웬만해선 잊지 않는다. 이해가 되면 엄청난 응용력을 발휘하지만 초기에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자기가 이해한 것을 모르는 친구에게 가르쳐 준다는 기본으로 혼자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

신경이 예민해 시험 때면 되던 불안해 하고 속이 불편해지는 등 노이로제를 호소하는 아이들 중에는 소음인이 가장 많다. 평소 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길러줘야 한다.



수그린 모습으로 걷는 사람이 많다. 자세가 외롭게 보이고 약하다. 엉덩이가 크다. 전체적으로 체격이 작고 말랐다.

Advertisement for Megabox (메가박스) and other entertainment venues, listing movies and showtimes.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Cheonwon (첨원), Gimbudong (금부동), Minjeong (민정), and others, listing properties and contact information.